

정치권은 호남 약진 ‘훈풍’ 내년 예산은 반토막 ‘삭풍’

광주 무등산 군부대 이전·전남 철도 도로 항만 등 사업비 누락
19일까지 기재부 안 확정...국회서 여야 공조로 총력전 펼쳐야

전남도가 2017년도 철도,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정부부처에 요청한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정부부처 예산에서 누락됐다. 건의액의 절반만이 반영돼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것이다.
광주시 역시 주요사업이 부처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예산 반영 및 증액이 없을 경우 신규 사업만이 아니라 기존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의 잇따른 호남 구애와 여의도에서의 호남 출신 약진 등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가 건의한 236건 2조6823억원 가운데 기재부가 심의 중인 정부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건수와 액수는 127건에 1조3697억원에 불과했다. 51%의 반영율이다. 법령 등에 의한 국가 일괄 배분예산(복지예산 등)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시·군, 시·도 자율편성분) 등이 제외됐지만, 반영 건수와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담양 실·국이 소관 중앙부처를 상대로 꾸준한 국고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으나 정부부처 내 지역 인맥 부족, 실적 누리 불충분 등의 한계를 넘어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 기재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반영액을 조기에 파악해 미반영 사업 중 필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실국장별 ‘핫라인 제’를 가동하고, 오는 23일에는 새누리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여·야와의 공조 강화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특히 무안공항 활성화사업(2017년 사업비 20억원), 완도 해조류박람회(30억원), 국제수목화비엔날레(5억원),

고형선박해상테스트기반시설 구축(20억원)은 예산 반영 필수 사업으로 꼽고 있다. 1800억원만이 반영된 남해안철도(보성~목포) 건설사업도 30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할 대상이다.
다만 다소 어려운 것으로 예상했던 영암~해남기업도시 진입도로(250억원), 흑산소형공항 건설(200억원), 신안 증도 기독교체험관(9억원) 등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수습했다.
광주시의 경우 내년에 253건 2조1390억원의 국고 지원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215건 1조7842억원을 정부부처가 반영했다. 주요 미반영 사업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50억원),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48억원), 빛그린산단(광주방면) 진입도로 개설(19억원),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시험인증센터 구축(30억원) 등이다.
한편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386조 4000억원)보다 늘어나 400조원 돌파가 유력시 되고 있어 각 지자체간 정부 예산 확보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양궁 전통목 석권 ... 리우 영웅들이 돌아왔다



리우올림픽 전 종목 석권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 양궁 대표팀 최미선(오른쪽부터), 기보배, 장혜진, 이승윤, 김우진, 구본찬이 1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금메달을 깨무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18·19면 /연합뉴스

힘내라 코리아! Rio 2016

17일(수) <한국시간>
05:30 배드민턴 여자 단식 8강
19:30 골프 여자부 1라운드
박민비 김세영 전인지 양희영 출전
23:15 태권도 남여 16강전
18일(목)
19:30 골프 여자부 2라운드
22:00 근대5종 여자부 펜싱

여수 경도 3423억원?

전남개발공사 매각가 적정 여부 논란
“운영 투자금·여수 프리미엄 못 챙겼다”

여수 경도에 대한 미래에셋의 1조원대의 투자와 관련 일각에서 전남개발공사의 매각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정평가와 개발원가를 기초로 한 매각금액이지만, 수년간 골프&리조트 등을 경영하면서 투입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부동산 시세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여수의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경도에 대한 투자가 부적절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경영수익 개선을 위해 자산 매각을 서두르면서 ‘수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1단계(2009~2014년)에 지금까지 모두 3576억원을 투자했다. 단지 총면적은 216만8894.5㎡로, 이 가운데 이주단지를 제외한 212만7188.5㎡가 매각 대상이다. 공사 측은 단지 매각을 위해 지난 5월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금액은 이보다 낮은 3325억원이었다. 조성원가인 3576억원을 매각 기준

금액으로 하고, 지금까지 골프장 등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154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3422억원이 기초금액이 됐으며, 미래에셋 측이 1억원을 더 얹어 3423억원을 매각금액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제외하면서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2012년 5월 골프&리조트 개관 이후 수년간 투자한 인건비, 운영비 등은 물론 미래 경영수익 등을 매각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수에 대한 투자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매각을 서두르면서 그에 따른 프리미엄도 얻지 못한 셈이다.
미래에셋의 갑작스러운 투자 배경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초 중국 자본과의 협상을 계속해온 전남개발공사가 갑자기 지난 7월 18일 외자유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참가 제안안내서를 비공개로 미래에셋 등에 발송하고 2주만인 8월 1일 제안서를 접수해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전 협의가 없는 불가능한 절차라는 것이 재

계 일각의 주장이다.
국내 한 기업 관계자는 “미래에셋의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일 수 있지만 전남개발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르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을 계속하면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자산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것이 곧 감정평가액으로 과거에 투자한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매각가격보다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나 안정성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또 물먹은 호남... ‘탕평’은 없었다

박대통령 3개 부처 개각
문체 조윤선
농림 김재수
환경 조경규



조윤선 문체 김재수 농림 조경규 환경
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발탁 배경이 됐다.
김 내정자는 농림부 주요 과장을 두루 역임하고, 농림부 차관과 농촌진흥청장 등을 지낸 농축산식품 분야의 정통 관료다.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등에서 예산업무 담당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내며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조정업무를 수행했다.

조 내정자는 서울, 김 내정자는 경북, 조 내정자는 경남 출신으로 이번 개각에도 영남이 중용되고 거론되던 호남 인사들은 또다시 배제됐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4개 부처 차관급 교체 인사도 단행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산업부 1차관에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농촌진흥청장에는 정항준 청와대 농축산식품 비서관을 선임했다.
노 차관은 전북 출신으로 광주일고를 졸업한 유일한 호남 인사다.
한편, 이번 개각 발표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 발표는 없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청와대 정부수석을 역임한 조윤선(50)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59)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57)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하지만, 애초 예상과 달리 호남인사 발탁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탕평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조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부수석 등을 역임한 현 정부 핵심인사로, 박 대통령 국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불롬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 유행병 예방이나 아로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